

#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 군집에 따른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

정기수<sup>1</sup>, 하정희<sup>2\*</sup>  
<sup>1</sup>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sup>2</sup>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The Differences of Depression, Aggression, Negative Affect Intensity in Cluster of Adolescent Aggression Expression

Ki-Soo Jung<sup>1</sup>, Jung-Hee Ha<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up>2</sup>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표현의 하위차원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 방식 별로 군집 양상을 구분하고, 간 군집 별로 우울과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총 2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네 개의 프로파일 군집이 추출되었다. 군집 1은 ‘억제 및 표출형 분노조절형’, 군집 2는 ‘분노억제 및 표출형’, 군집 3은 ‘분노처리 미숙형’, 군집 4는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이러한 네 개의 군집 별로 우울과 공격성, 부정정서 강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군집 4인 ‘표출적 분노조절형’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었고, 군집 3인 ‘분노처리 미숙형’은 다른 군집들보다 더 큰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군집 2인 ‘분노억제 및 표출형’이 군집 4인 ‘표출적 분노조절형’보다 부정정서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files of anger expression (anger control, anger in, anger out) and their variation in forms, and determined the differences in depression, aggression, and negative affect intens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survey responses of 296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ere analyzed. The major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Cluster analyses yielded four anger expression profiles: cluster 1 was characterized by high scores for anger control, anger in and anger out, cluster 2 by low scores for anger control, high scores for anger in and anger out, cluster 3 by low scores for anger control, anger in and anger out, and cluster 4 by low scores for anger in, high scores for anger control and anger out. (2) Between-clust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ggression, and negative affect intensity were all significant. The posteriori test indicated that cluster 4 was higher than the other three clusters in terms of depression. Cluster 3 was higher than the other three clusters on aggression, cluster 2 was higher than cluster 4 in terms of aggression. The interventions by aggression expression cluster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to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explained.

**Keywords** : Aggression Expression Cluster, Depression, Aggression, Negative Affect Intensity, Adolescent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Ha(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

Tel: +82-2-2220-2613 email: hajung366@hanyang.ac.kr

Received October 31, 2018

Revised (1st November 22, 2018, 2nd November 27,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 1. 서론

청소년 시기는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와 학교에서의 성취에 대한 압력, 교우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기 쉬운 때이다. 우유라, 노충래[1]는 이러한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갈등이나 욕구 불만,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각종 청소년 폭력문제나 교우관계에서의 소외 문제 등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들의 기저에도 상당 부분 분노 감정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2]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분노에 관심을 갖고 분노의 특성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교육적, 치료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노는 때로 공격자에게 자신의 위협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의 적응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도 설명된다[3]. 따라서 분노 그 자체만으로 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적응적이 될 수 있고 부적응적이 될 수도 있다[4]. Spielberg, Krasner와 Solomon[5]의 제안에 따라, 분노 표현 방식을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라 나눌 수 있다. 분노조절은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으로, 분노 감정을 다스리고자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노표현에 있어서 매우 적응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분노표현 방식 가운데 매우 역기능적인 것으로서, 분노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분노표출이라면 분노억제는 안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다양한 부적응적 심리 특성과 관련된다.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개인의 건강,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고[6], 섭식장애나 폭식행동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7,8,9]. 또한, 분노표출은 우울, 공격성과 관련되며[10,11], 분노억제는 우울, 부정정서 및 자살 사고와 관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12,13] 이렇듯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주로 부적응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은 모두 한 개인이 나타내는 특질적인 반응경향성이며[14],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서의 분노표현 양상으로 설명된다[15,16].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은 각각 이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로 개인은 이들 분노표현 양식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특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표현 양식들의 조합에 따라 개인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노표현 연구는 분노조절이나 분노억제, 분노표출 각각의 변인 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가 되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조합을 통한 특성 및 결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서의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노표현방식 별 군집 양상을 구분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분노표현의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나타내었던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대한 분노표현의 군집 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표현 방식 별로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가? 둘째, 분노표현 군집들 간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청소년의 분노표현과 우울

신경질적이고 급격한 정서변화를 경험하기 쉬운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17]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를 적응적으로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부적응적 정서표현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라 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4,18]. 반면에 화가 났을 때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고 냉정한 채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분노조절은 감정적으로 화가 나지만 이를 조절하기 위한 의도적인 적응적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억제가 심한 개인은 부정정서 및 우울감을 경험하기 쉬우며[13],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할수록 우울, 신경증, 긴장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19,20].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분노를 억제하거나 표출할 경우 내면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21]. 또한, 분노억제가 심하고 분노조절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22].

이렇듯, 역기능적 방식으로 알려진 분노표출 및 분노억압이 높은 경우 우울과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억압의 차원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이해할 때, 개인은 여러 측면의 분노표현 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점수가 모두가 높은 경우, 혹은 분노표출 점수만 높은 경우 등 개개인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의 군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분노표현 방식 군집별로 우울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2 분노표현과 공격성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해를 입히려는 행동 또는 동기로 설명된다[23,24]. 분노표현은 공격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경우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5,26]. 또한, 분노표출 정도가 심한 경우에 공격성이 커지며, 분노표출이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타인을 향한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분노억제와 공격성 간 관련성 역시 크게 나타나는데 분노를 억제하는 경우 전위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8]. 또한,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29]은 분노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주어, 우울에 이르게 됨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의 경우, 분노 감정은 공격성 및 우울과 관련되는데[13,30], 이와 비슷하게 이미리[31]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를 정서 폭발적으로 표출한 경우 폭력행동과 우울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절 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32-33].

따라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공격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분노 정서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는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34].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군집 별 특성에 따라 개개인의 분노표현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노표현 군집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 2.3 분노표현과 부정정서강도

분노표현은 부정정서강도와도 관련된다. 정서강도는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성으로서, 정서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각성 정도 및 반응성으로 설명된다[35]. 정서강도 자체는 높은 활동성이나 외향성, 정서표현성에도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으나[35], 정서강도가 강한 사람들이 부적응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며[36] 정서를 더 드러내고 표현하는[37] 등 이들의 특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서강도의 특성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서, Rubin, Hoyle, 그리고 Leary[38]는 정서강도를 단일요인이 아니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분노표현과 정서강도와의 관계는 긍정정서보다 부정정서 강도와와의 관련성이 주를 이룬다. 가령, 부정정서 강도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며[39], 정서억제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0]. 한편, 분노정서를 의식적으로 제제하면서 개인의 내적 정서를 통제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쾌한 정서강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42].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수준이 클수록 과도하게 높은 부정적 정서 강도가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4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분노표현 방식과 부정적 정서표현 강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 역시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관계를 살펴본 것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군집 별 유형에 따른 부정적 정서강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재학 중인 중학생 1, 2, 3학년 3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8명을 제외한 후 총 296명(남 59명(19.9%), 여 237명(80.1%))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평균 연령은 15.09( $SD=0.88$ )이었으며, 검사에 대한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 3.2 측정도구

#### 3.2.1 아동용 분노관리 척도(CAMS)

청소년의 분노 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용 분노관리 척도[44]를 관련 전공 교수와 본 연구자가 함께 번안하였다. 이 척도는 여섯 살에서 청소년기인 열네 살에 이르기까지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75-76].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후 영어 전공자가 역 번역 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들을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실시 에 앞서서 원척도와 번안이 이루어진 척도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이 나는 문항들에 대해 합의 를 도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노관리 척도는 총 11문 항이며, 분노조절 및 분노표출, 분노억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노조절 문항은 분노하고 있는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하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항으로, “화가 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침착하게 처리하려 노력 한다(I try to calmly deal with what is making me angry)”의 문항이 포함된다. 분노표출 문항은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징징대거나 짜증을 부린다(I whine/fuss about what is making me angry)”와 같은 문 항이 이에 속한다. 분노 억압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억 누르는 것으로, “나는 화가 나도 그것을 드러내진 않는다(I get angry inside but I don't show it)”의 문항을 일 켜는 다. 본 척도는 3점 Likert형으로 평정되는데, 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 노억압 별로 .77, .60, .62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타당도 도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하위차원 모두 정서 자 각, 슬픔 및 분노 정서 통제, 특성불안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4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는 .75, .69, .68로 나타났다.

#### 3.2.2 우울 척도(CES-D)

청소년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5]에 의해 번안 및 타당화가 이루어진 한국판 CES-D 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의 우울감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이 섞여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문항은 역채 점된다. 4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더 많이 우울함을 의미한다. 전경규와 이민규[45] 연구에서 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3.2.3 공격성 척도(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Durkee[46]의 척도를 노안녕[47]이 번역하고 타 당화한 척도를 다시 최선이[48]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공격성과 적의성, 죄의식을 측정하는 여덟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하위척도 즉,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를 일컫는 ‘물리적 공격성’, 악의 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 난을 하는 등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간접적 공 격성’, 언어로서 타인을 위협하고 저주하는 ‘언어적 공격 성’, 타인과 협력하지 않으며 타인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주로 하는 특성을 일컫는 ‘부정성’, 타인을 향해 화를 쉽 게 내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인 ‘홍분성’의 20문항을 이 용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공격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희와 이은주[49]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격성 전체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6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 3.2.4 정서강도 척도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강도를 측정하고자 Larsen[50] 이 개발한 척도를 한정원[5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척도에서는 긍정정서성, 부정적 정서강도, 침착성, 부정적 반응성으로 구분된다. 이후 한정 원[51]은 긍정정서성을 ‘긍정정서강도’로, 부정적 정서 강도 및 부정적 정서 반응성을 ‘부정정서강도’로 명명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부정적 정서강도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평정은 6점 Likert형 척도로 이 루어지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부정적 정서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상희[52] 연구에서의 부정정서강도 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73으로 나타났다.

### 3.3 자료분석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각 척도의 신뢰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조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분노표현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점수를 표준점수화 한 후 Hair와 Black[53]에 따른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들 간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다변량분석(MANOVA)과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측정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와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조절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분노억제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분노표출은 우울 및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Table 1. Correlations of Variabl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N = 297)

Variables	1	2	3	4	5	6
1	-	.33***	-.05	-.10	-.26***	-.09
2		-	.26***	.26***	-.12	.11
3			-	.84***	.17**	.14*
4				-	.25***	.11*
5					-	.15*
6						-
M	2.16	2.01	1.50	1.77	3.05	4.00
SD	.46	.55	.63	.63	.47	.92

\* p < .05, \*\* p < .01, \*\*\* p < .001

Note. N = sample size.

1. Anger-control, 2. Anger-in, 3. Anger-out, 4. Depression, 5. Aggression, 6. Negative Affect Intensity

### 4.2 분노표현방식 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분노표현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Hair와 Black[53]의 제안에 따른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 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에 군집화 일정표의 개수 변화 및 덴드로그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 군집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군집 1은 68명(23.2%), 군집 2는 56명(19.2%), 군집 3은 84(28.8%)명, 군집 4는 84(28.8%)

명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을 통해 군집 별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한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군집 1은 분노조절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점수 또한 높게 나타나 ‘억제 및 표출형 분노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분노조절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분노억제와 표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분노억제 및 표출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으로서, 적응적·부적응적 분노 표현방식 모두가 낮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군집 3을 ‘분노처리 미숙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분노억제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집단이다. 분노조절은 잘 하지만 분노표출 또한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Group Centroids

Variables	Cluster 1 (n=68)	Cluster 2 (n=56)	Cluster 3 (n=84)	Cluster 4 (n=84)
Anger-control	59.19	41.23	44.73	56.32
Anger-in	61.61	52.35	46.03	42.57
Anger-out	54.68	53.94	37.73	56.07

Note. Anger expression subscale scores were standardized (T score; M=50, SD=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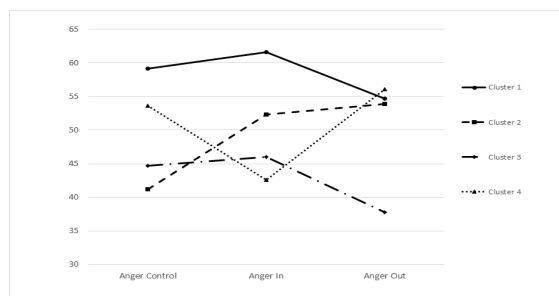


Fig. 1. Anger Expression Clusters

### 4.3 분노표현방식 군집별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

분노표현 방식 군집 별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의 차이 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군집별로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Aggression, Negative Affect Intensity by Anger Expression Cluster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	η <sup>2</sup>	Contrasts
	n=68		n=56		n=84		n=84				
	M	SD	M	SD	M	SD	M	SD			
Depression	1.82	.57	1.95	.65	1.86	.72	1.50	.46	7.88***	.076	1,2,3<4
aggression	2.87	.45	3.04	.43	3.30	.47	2.92	.40	14.94***	.139	1,2,4<3
Negative Affect Intensity	4.01	.90	4.22	.85	4.08	.93	3.74	.91	3.59*	.014	4<2

\* p < .05, \*\* p < .01, \*\*\* p < .001

군집들 간에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등분산이 가정된 공격성과 부정정서는 Scheffe 값을 살펴보았으며,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등분산을 가정하기 어려운 우울의 경우에는 Dunnett T3 값을 통해 해석하였다.

먼저, 우울은 ‘표출적 분노조절형’(군집 4) 집단이 다른 군집 1, 2, 3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은 ‘분노처리 미숙형’(군집 3)집단이 다른 군집 1, 2, 4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정정서강도의 경우 ‘분노억제 및 표출형’(군집 2) 집단이 ‘표출적 분노조절형’(군집 4)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5.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 방식 별 군집 양상을 구분하고, 군집 별로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의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의 방식 별로 네 가지 군집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분노표현의 군집 양상 별로 이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군집 1은 ‘억제 및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서, 분노표현의 기능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분노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동시에, 분노표현의 역기능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다. 이러한 분노표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집단을 억제 및 표출형 분노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분노억제 및 표출형’으로, 이 집단은 분노

조절은 어려운 반면에 역기능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군집이다.

군집 3은 ‘분노처리 미숙형’으로, 분노조절과 분노억제, 분노표출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부적응적 방식으로 개인 의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6,54], 분노억제 및 표출이 낮은 경우 개인의 적응에 적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점수가 낮은 뿐 아니라 분노조절 점수 또한 낮은 경우도 존재하며, 이러한 청소년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노억제와 표출 점수가 낮으면서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군집 4는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서, 분노억제 점수는 낮고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점수는 높은 집단이다. 즉, 이 집단은 분노조절은 잘 하지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주로 표출하는 집단이므로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분노표현이 우울, 알코올 관련문제, 폭력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되며 [55-56], 분노억제가 신경증 및 소화계질환[57-58], 불안 및 섭식장애[59], 자살[60] 우울[61] 등과 관련되는 등 분노표현과 억제 모두는 역기능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서 억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연구 또한 존재하는데, 자신이나 속한 집단에서 정서억제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62]. 따라서 성공적인 정서억제가 한 개인의 적응여부나 성숙에 있어서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63]. 이에 군집 4와 같이 분노조절을 잘 하더라도 분노억제를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특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며, 이렇듯 다양한 분노표현 특성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분노표현 군집별로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출적 분노조절형 군집(군집 4)이 다른 군집 1, 2, 3보다 유의하게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었다.

표출적 분노조절형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분노표출 점수는 가장 높지만 분노억제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이 분노를 많이 표현할수록 분노감정은 더욱 더 지속되고 증폭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더 쉽게 분노를 느끼고 화내는 습관을 가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64-66]. 분노억제 역시 두통, 신경증, 긴장 수준의 증가[19,20],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 및 불안[22], 내면화 문제와의 관련성[21]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정서의 억제는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서억제가 강한 경우 외향성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인들은 정서억제를 많이 할수록 성실성이 높았고 자존감이나 대인관계 특성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67]. 또한, 한국 문화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미국인들에 비해 더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68], 한국의 청소년들이 분노를 억제하기보다는 주로 표출하는 특성을 나타낸다면 이들이 분노조절 능력이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우울감이 커질 수 것이다.

한편, 분노처리 미숙형 군집(군집 3)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노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공격적 행동이 커진다고 설명된다[25-26].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분노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32,69,70].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분노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크게 나타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절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등 전반적인 분노표현 점수가 모두 낮은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오히려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심한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공격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다루기 위해서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노 조절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노억제 및 표출형 군집(군집 2)이 표출적 분노조절형 군집(군집 4)보다 부정정서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분노를 억제하고 표출하는 집단이 분노를 억제하기보다는 표출하면서 동시에 분노를 조절하는 집단에 비해 부정정서를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다양한 부적응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10-13,58,71,72]. 반면에, 분노를 잘 조절하는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덜 느끼며[73] 정서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행동문제나 정신장애에도 부적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74]. 따라서, 분노조절을 잘하지 못하면서 분노억제나 표출 위주의 정서표현을 하는 청소년들은 분노표출이라는 부적응적 정서표현을 하더라도 분노조절을 잘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부정정서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분노표현의 다양한 특성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특성들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분노표현의 하위변인 별로 그 특성을 각각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분노표현 방식의 군집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청소년들이 분노조절을 잘한다고 해서 역기능적인 특성으로 간주되는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발견된 군집에서 분노조절을 잘하는 두 개의 군집 가운데 한 군집은 분노억제와 표출을 동시에 하는 집단이었으며, 또 다른 집단은 분노억제는 덜하지만 분노표출을 많이 나타내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분노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조절을 잘 하더라도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크게 분노를 억제하고 표출하는 것이 주가 되는 집단과 분노조절

이나 표현, 억제 모두 점수가 낮은 두 개의 군집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조절을 잘하거나 못하는 경우 모두 분노표현에 있어서의 다차원적 양상이 존재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분노표현의 군집이 존재하며, 이러한 군집별로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분노조절을 잘 하더라도 분노억제를 하지 못하고 표출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군집들보다 우울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격성은 전반적인 분노표현 자체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노조절을 잘 하는 청소년이라도 분노억제를 잘 못하면 우울에 취약하며, 분노감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표현도 잘 못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공격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때때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우울을 줄이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다뤄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분노표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고 적절하게 억제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먼저 본 연구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연구 결과를 청소년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아동용 분노통제 척도(CAMS)[44]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칙도에 따르면, 이 척도는 여섯 살에서 청소년기인 열네 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75-76]에 따라 사용하였지만,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화의 과정 없이 이 척도를 사용한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이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관련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1] Y. R. Woo, C. R. Nho,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Solidarity between Emotional and

Aggressive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6, No.2, pp. 203-227, 2014.

- [2] J. E. Koo, H. J. Song, "Th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mary Anger Thought and Secondary Anger Thought in Korean Adolescents : Present Condi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Psychotherapy*, Vol.10, No.2, pp. 137-155, 2010.
- [3] DiGiuseppe, R., Taffrate, R. C. Understanding anger disord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4] J. H. Ha,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6, pp. 105-126, 2017.
- [5]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89-108, Springer, New York, NY, 1988.
- [6] J. E. Song, "Relationships among Anger Level, Anger-Expression Mode and Interpersonal Tendency",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7.
- [7] H. J. Jung, "Relationship of social anxiety, anger suppression, depression and binge eating behavior among women university student",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5.
- [8] J. Hur,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Bulimia Nervosa of female Adolescents : Moder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2017.
- [9] Krug, I., Bulik, C. M., Vall-Llovera, O. N., Granero, R., Agüera, Z., Villarejo, C., ... & Fernández-Aranda, F., "Anger expression in eating disorders: clinical, psychopathological and personality correlates", *Psychiatry Research*, Vol.161, No.2, pp. 195-205, 2008.
- [10] M. R. Jung, "The Effects of Snger and Rumination about of Stressful Life Event on Interpersonal Problem in Undergraduates",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2005.
- [11] C. S. Lee, Y. R. Kweon, & S. J. Kim,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16, No.1, pp. 32-40, March, 2007.
- [12] K. S. Lee, D. W. Han, "The Effects of Suppress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of Anger experience on State Anger",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011, No.1, pp. 406-406, 2011.
- [13] Gross, J. J., John, O. P.,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5, No.2, pp. 348, 2003.
- [14] K. K. Chon, D. W. Han, & C. H. Le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3, No.1, pp.



- 18-32, 1998.
- [15] Spielberger, C. D. State-Trait Depression Scales (Form X-1). Palo Alto: Mind Garden, 1995.
- [16] S. G. Seo, H. J. Lee, & S. M. Kw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Anger-Out/Anger-In Attitude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3, No.2, pp. 521-540, 2004.
- [17] Steinberg, L. Adolescence. NY: McGraw-Hill. Inc., 2011.
- [18] Kopper, B. A., Epperson, D. L.,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3, No.2, pp. 158, 1996.
- [19] M. H. Le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on Anger Expression Style-Focused on the Middle School Student" The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2011.
- [20] M. L. Je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Mode and Anxiety/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2011.
- [21] Zeman, J., Shipman, K., & Suveg, C., "Anger and Sadness Regulation: Predic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31, No.3, pp. 393-398, 2002.
- [22] J. E. Kim, Y. J. Lee, "The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and Social Support on Anger Expression Style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3, pp. 1551-1567, 2013.
- [23] Morris, C. G. Psychology: an Introduction(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1988.
- [24]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jn butcher & c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2, pp. 159-187, 1983.
- [25] I. G. Park, G. B. Han,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Adolescent Aggression: Mediating Effect of Anger and Empath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2, pp. 375-397, 2014.
- [26] [25,26, Jon G. Coping with Trauma :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 DC ; London : American Psychiatric Pub., District of Columbia, 2005.
- [27] Deffenbacher, J. L., Hazaleus, S. L., "Cognitive, Emotional, and Physiologic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9, No.2, pp. 169-180, 1985.
- [28] H. N.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placed Aggression Group",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9.
- [29] N. Y. Lee, S. H. Ha, & M. S. Chang, "Emotional Trauma in Childhood and Depression in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in and Displaced Aggres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2, pp. 203-222, 2017.
- [30] H. J. Kwon, "Anger of Adolescence", *Chungang Journal of Medicine*, Vol.16, No.1, pp. 79-88, 1991.
- [31] M. R. Lee, "Interaction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on Adolescent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7, No.5, pp. 67-78, 2006.
- [32] S. Y. Park, J. H. Kang,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6, No.1, pp. 1-14, 2005.
- [33]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 & Guthrie, I. K.,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72, No.4, pp. 1112-1134, 2001.
- [34] von Salisch, M., Vogelgesang, J., "Anger Regulation among Friends: Assessment and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2, No.6, pp. 837-855, 2005.
- [35] Larsen, R. J., Diener, E.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21, No.1, pp. 1-39, 1987.
- [36] Gohm, C. L., Clore, G. L.,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6, No.6, pp. 679-697, 2000.
- [37] J. H. Hong,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erience, Emotional Express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 No.3, pp. 767-784, 2007.
- [38] Rubin, D. C., Hoyle, R. H., & Leary, M. R., "Differential Predictability of Four Dimensions of Affect Intensity", *Cognition & emotion*, Vol.26, No.1, pp. 25-41, 2012.
- [39] J. H. Hong, C. K. Oh,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s and EA on Adolescents' SWB",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6, pp. 2401-2415, 2014.
- [40] Lynch, T. R., Robins, C. J., Morse, J. Q., & Krause, E. D., "A Mediation Model Relating Affect Intensity, Emotion Inhibi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Behavior Therapy*, Vol.32, No.3, pp. 519-536, 2001.
- [41] M. K.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 [42] K. S. Lee, "The Effects of Suppress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of Anger on State Anger",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2.
- [43] Tragesser, S. L., Lippman, L. G., Trull, T. J., & Barrett, K. C.,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nd Cognitive, Emotional, and Predicted Behavioral Reactions to Teas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2, No.6, pp. 1512-1523, 2008.
- [44] Zeman, J., Shipman, K., & Penza-Clyve, 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hildren's Sadness Management Scal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Vol.25, No.3, pp. 187-205, 2001.

- [45] K. K. Chon, M. K. Lee,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1, No.1, pp. 65-76, 1992.
- [46] Buss, A. H.,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21, No.4, pp. 343-349, 1957.
- [47] A. Y. Rho,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Anxiety in Juvenile Delinquents",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
- [48] S. Y. Choi, "A Study on the Factor Which Influences on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Women Develop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 [49] S. H. Lee, E. J. Lee, "A Case Study on Art Therapy for Reducing Anxiety and Aggressiveness of Children in a Single-Parent Family",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4, No.6, pp. 1485-1508, 2017.
- [50] Larsen, R. J. Theory and Measurement of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1985.
- [51] J. W. Han, "The Influences of Emotional Expressivity on Physical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52] S. H. Ju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nsity and Emotional Clarity on the Binge Eating",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53] Hair, J. F., Black, W. C., Grimm, L. G., & Yarnold, P. R.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147-20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 [54] Martin, R., Wan, C. K., David, J. P., Wegner, E. L., Olson, B. D., & Watson, D., "Style of Anger Expression: Relation to Expressivity, Personality, and Heal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5, No.10, pp. 1196-1207, 1999.
- [55] K. K. Chon, K. H. Kim, "Effects of Anger, Hostility, and Stress on Physical Health",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 No.1, pp. 79-95, 1997.
- [56] Hubbard, J. A., & Coie, J. D.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p.1-20, Merrill-Palmer Quarterly, 1994.
- [57] Y. G. Go, C. Y. Ahn, "The Defensive Projection of Anger-Repression Group",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2, No.3, pp. 641-660, 2003.
- [58] K. H. Kim, "Anger-in and High Blood Pressure",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0.
- [59] Zaitsoff, S. L., Geller, J., & Srikaneswaran, S.,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The Professional Journal of the Eating Disorders Association*, Vol.10, No.1, pp. 51-60, 2002.
- [60]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Vol.36, No.141, pp. 163, 2001.
- [61] S. I. Choi, Z. S. Kim, M. S. Shin, M. J. Cho, "Modes of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Somatiz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40, No.3, 2001.
- [62] Consedine, N. S., Magai, C., & Bonanno, G. A., "Moderators of the Emotion Inhibition-Health Relation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6, No.2, pp. 204-228, 2002.
- [63] Y. G. Ko, Salovey, P., J. Y. Kim, "Sakhim of Han as a Mature Suppression: Implications for Cancer Patients' Emotional Cop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9, No.4, pp. 1003-1026, 2004.
- [64] H. Y. Choi, K. H. Min, "The Study on the Validation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Suppression Constructs in Korean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1, No.4, pp. 71-89, 2007.
- [65] Berkowitz, L., Cochran, S. T., & Embree, M. C., "Physical Pain and the Goal of Aversively Stimula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0, No.4, pp. 687-700, 1981.
- [66] Kennedy-Moore, E., Watson, J., & Johnson, S. Expressing Emotion: Myths, Realities, and Therapeutic strategies. The Guilford Press, 2000.
- [67] E. K Lee, E, K. Suh, Chu, T., Kim. H. S., & Sherman, D. K., "Is Emotion Suppression That Bad? Comparing the Emotion Sup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Link in Two Cultur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3, No.1, pp. 131-147, 2009.
- [68] Diener, M. L., & Lucas, R. E., "Adults Desires for Childrens Emotions across 48 Countries: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5, No.5, pp. 525-547, 2004.
- [69] H. K. Park, S. Y. Park, "Father's Parenting Behavior, Son's Emotional Regulation as Related to Son's Aggress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8, No.40, pp. 113, 2002.
- [70] J. Y. Suh,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s in relation to Daughter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The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03.
- [71] J. Y. Park,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f A Family's Surviving Experience after A Suicide Lo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6, No.12, pp. 203-231, 2010.
- [72] H. J. Jang, J. Y. L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Types of Causes and Expressions of Anger,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33, No.3, pp. 23-43, 2012.
- [73] J. H. Ha, Jue, J.,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Inhibition and Emotion Regulation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epression. SAGE Open, 2018.

- [74] Robertson, T., Daffern, M., & Bucks, R. 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7, No.1, pp. 72-82, 2012.
- [75] Penza-Clyve, S., Zeman, J., & Sim, L., *Mother and child report of asthmatic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1999.
- [76] Shipman, K., Zeman, J., Penza-Clyve, S., & Champion, K., Managing emotion in sexually-maltreating and nonmaltreating context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pp. 47-62, 2000.
- 

**정 기 수**(Ki-Soo Jung)

[정회원]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98년 3월 ~ 2001년 2월 : 한양대사회교육원 교수
- 2001년 4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성인교육, 교육경영, 리더십

---

**하 정 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상담심리전공)
- 2009년 8월 ~ 2016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청소년의 적응, 애도 및 상실, 다문화상담